

문서번호 : 18-08-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0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제 목 : [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전송일자 : 2018. 8. 13. (월)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기획탈북범죄에 가담한 지배인과 피해 종업원들 중 일부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집단유인납치 범죄행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퀴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중 지배인과 피해 종업원들 중 일부와 면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였고, 이에 힘입어 만시지탄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6일 기획탈북범죄에 대하여 직권조사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나 기획탈북범죄의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내외의 빗발치는 진상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한편 북한 당국은 종업원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즉각 무조건 전원 송환할 것을 요구하며 종업원들의 송환 여부는 남한 당국에게 남북관계개선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고 판문점 선언이행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종업원들의 송환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8월 20~26일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에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를 개최하여 인도주의 및 인권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분단적대를 악용한 불미스러운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과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 일시 : 2018. 8. 14. (화) 오후 2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 좌담회 순서
 1. 사회 : 권정호 변호사(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2. 발제 : 장경욱 변호사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 팀장)
 3. 패널 :
 - 발표 1 -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
 - 발표 2 - 서의동 기자(경향신문 논설위원)
 - 발표 3 - 박승렬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표 4 - 김광수 박사(북한정치 전공)
 4. 특별 순서 : 김련희 평양시민 - 북 류경식당 종업원들을 가족의 품으로
 5. 질의응답

2018. 8.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